투어 번호
LKZNKYR9S2

콜롬보에서 출발하는 스리랑카의 마지막 왕국 (3일)

3일 · 2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3일 투어는 콜롬보에서 출발하여 스리랑카의 산악 지역으로 향하며, 캔디를 중심으로 향신료 정원과 왕립 식물원에 들러갑니다. 개인 운전기사 가이드가 동승한 차량을 이용하므로, 관광지 사이를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이동하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탐방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스리랑카 향신료와 허브에 대해 배우고, 섬의 주요 식물원 중 한 곳을 산책하며, 캔디를 자유롭게 탐험하거나 선택 사항인 마을 및 폭포 투어에 참여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낸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성스러운 치아 사원을 방문하고 콜롬보나 공항으로 돌아옵니다.

투어 전체는 개인 차량과 영어를 구사하는 운전기사 가이드와 함께 진행됩니다. 호텔 숙박, 식사, 입장료는 별도로 예약하므로, 여행객들은 자신에게 맞는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콜롬보 → 캔디

콜롬보 또는 공항을 출발해 언덕 지대로 향하는 이날 일정은 캔디로 가는 길에 향신료 농원과 식물원에 들르는 것으로 시작되며, 캔디에서는 전담 기사 겸 가이드가 합류해 이후 여정을 안내합니다.

수라투라 향신료 농원

가이드와 함께 향신료 및 약초 농원을 둘러보며 고수, 칠리, 시나몬, 카다몬, 육두구 등의 식물과 그 용도, 그리고 스리랑카인의 삶에서 아유르베다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이 식물원에는 4000종이 넘는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희귀한 나무들이 그늘을 이루는 가로수길을 거닐고, 캐논볼 나무를 보고, 출렁다리를 건넌 뒤 디가나로 이동해 체크인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2 캔디

캔디에서의 자유일로, 원하는 분들을 위해 인근 마을과 폭포를 방문하는 선택 일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을 산책 및 폭포 투어

전담 가이드와 함께 마을을 거닐며 시골 생활과 작물, 재거리(천연 설탕)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고, 강에서 수영을 즐긴 뒤 정글을 지나 폭포까지 하이킹을 합니다.

Day 3 캔디 → 콜롬보

체크아웃 후, 캔디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유적지를 방문한 뒤 콜롬보 또는 공항으로 돌아가 출발하는 일정입니다.



불치사(佛齒寺)

16세기에 부처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기 위해 세워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빨강, 크림, 검정으로 채색된 복도와 홀, 조각된 기둥과 금박 불상들이 특징입니다.

A.Savin · FAL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Tips & Portages.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Chauffeur Guide's Accommodation.
- Entrance fees
- Visa and Related Expenses.